

## | 창간사 |



# 사회적 대화와 노동존중사회라는 시대정신을 담겠습니다

굳게 닫혀있던 사회적 대화의 문이 마침내 열렸습니다. 1999년 탈퇴한 민주노총과 2016년 노사정위원회 불참을 선언했던 한국노총까지 참여한 노사정대표자회의가 새해 1월 마지막 날 개최됨으로써 막혀있던 대화의 물길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여기까지 오는데 쉽지 않은 길이었고, 넘어 온 산과 건너 온 들판이 높고도 멀었습니다. 지난해 겨울을 뜨겁게 달구었던 광장의 촛불이 없었다면 결코 불가능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위대한 시민들의 촛불혁명이 만든 문제인 정부가 아니었다면 사회적 대화는 지금도 차가운 얼음에 갇힌 화석처럼 굳어 있었을 것입니다.

97년 외환위기 이후 20년이 지나는 동안 사회 양극화와 격차의 확대는 감내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비정규직 문제는 구조화 되었고, 차별사회란 인식이 국민의식 속에 널리 고착되었습니다. 청년들은 자조 속에서 희망을 꿈꿀 수 없었습니다.

그 끝에서 촛불이 타올랐던 것입니다. 촛불의 근원적 힘은 누구나 일할 수 있어야 하고, 차별받지 않겠다는 국민적 여망이 모아진 것입니다. 새 정부는 무엇보다 좋은 일자리, 차별받지 않으면서 일할 수 있는 사회, 노동존중사회를 만들겠다는 청사진을 밝혔습니다. 지금까지의 이윤주도 성장 패러다임에서 전환하여 소득이 뒷받침 되는 포용적 성장을 정책방향으로 삼아 변화를 이끌고 있습니다. 노동시장은 물론 사회 전체의 근간을 바꾸게 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일자리의 다양성과 일의 방식은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 로봇(AI)과 인간의 공존은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등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와 대책도 마련해야 합니다.

패러다임의 대전환에 따른 산적한 과제들의 해결은 정부의 정책만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노동이 곧 경제인 시대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 변화와 함께 각 경제 주체들이 힘을 모아야만 합니다. 촛불은 우리 노와 사, 정부가 대립과 갈등을 넘어 머리를 맞대고 문제를 해결하라고 준엄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은 기업별 노사관계의 틀을 넘어선 사회적 의제들을 논의하고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나눌 수 있는 길, 바로 사회적 대화의 길입니다.

그러나 과거 노사정위원회가 걸어 온 역사적 경험에 대한 성찰과 반성의 토대 위에서 새로운 사회적 대화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동안의 사회적 대화가 정부 정책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았는지, 충실한 협의 보다 무리한 합의를 강행함으로써 빈번한 파행을 겪지 않았는지, 비판과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최근 앞으로의 사회적 대화는 정부 주도가 아닌 노사가 중심이 된 사회적 대화, 무리한 합의 보다는 충분한 협의와 소통을 통해 신뢰를 쌓고 합의의 수준을 높여 나가야 한다는데 노사정이 공감하고 있는 것은 다행한 일입니다.

새롭게 태어날 사회적 대화기구는 공정하고 균형 있는 대화의 장이 될 것입니다. 경청하고 존중하며, 더 넓고 깊은 대화의 광장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위원 구성과 의제, 운영방식은 물론 심지어 명칭까지도 개편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난 1월에는 출입이 자유롭지 못했던 정부청사에서 나와 언제든 누구와도 소통이 가능한 열린 공간으로 이전도 하였습니다. 새로운 사회적 대화의 시작에 맞춰 지상(紙上)에서 이루어지는 대화의 플랫폼도 마련했습니다. 이번에 창간하는 격월간 『사회적 대화』에서는 전문성을 중심으로 현장성을 지향하면서, 산별과 업종, 지역 등에서 다양하게 진행되는 대화의 사례들을 찾아 〈사회적 대화와 노동존중사회〉라는 시대정신을 담아내려고 합니다.

올해로 노사정위원회라는 이름으로 사회적 대화를 시작한 지 20년이 되었습니다. 이제 국민들로부터 인정받는 사회적 대화 20년을 새롭게 시작하고자 합니다. 그 길은 초원의 곱게 난 길이 아님을 모두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험로라 해도 대화의 끈을 놓지 않으려는 의지, 진정성 있는 소통과 대화,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다하려는 노사정과 시민사회의 노력이 있다면 새로운 공동체의 희망을 꿈꾸는 것이 결코 헛된 일은 아닐 것입니다.

이번에 발간하는 『사회적 대화』가 그 길을 함께 가는 이들의 길목과 갈림길 마다 올바른 방향으로 안내하는 작은 표지목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위원장  
문 성 현